일본 제품 불매운동 1년

2030 세대 여전히 거센 'NO 재팬'
닌텐도게임 '동물의 숲'은 무풍지대

노 재팬(No japan).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일본 제품은 사지 않고, 일본에도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단순히 수출 규제에 대한 반격이 아니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경고였다.

일본이 뜬금없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불매운동 1년여 만에 어떤 회사는 매출이 반 토막 났고, 어떤 회사는 아예 한국에서 철수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네티즌이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잘 대응하면서 그 역할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기업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 소비재 기업 31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평균 6.9%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1.3% 급감했다.

특히 식음료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5%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적자 전환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아사히 맥주로 유명한 롯데아사히주류의 지난해 매출은 반 토막(-50.1%) 났다. 영업손실만 308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부품(-16.8%), 생활용품(-14.5%), 기타(-11.4%) 업종의 매출도 1년 전보다 10% 이상 쪼그라들었다. 완성차 업체 중 닛산과 인피니티는 한국 진출 16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제조·직매형 의류(SPA) 브랜드인 유니클로도 이달에만 국내 9개 매장을 폐점한다.

지난해 8월 187개에 달했던 유니클로의 국내 매장 수는 이달 말이면 165개로 준다. 일본의 또 다른 SPA 브랜드 지유(GU)는 이달 말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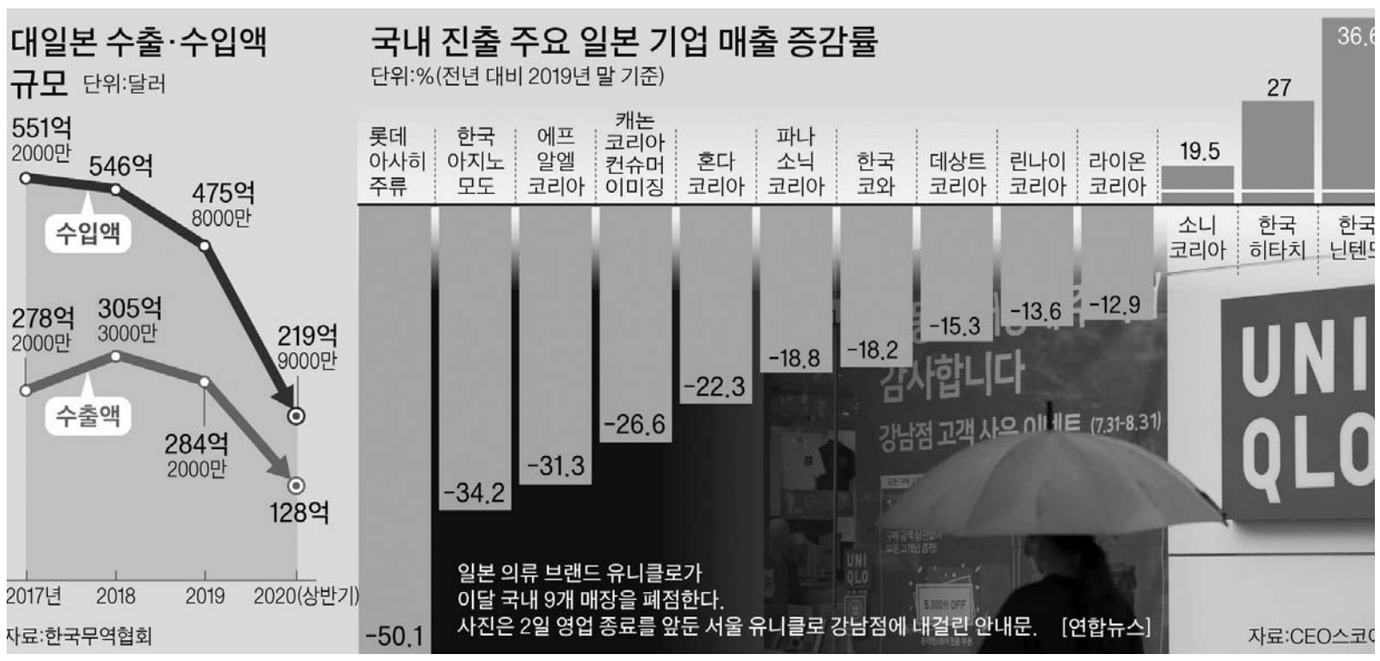
하지만 모든 일본 제품이 타격을 받은 건 아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인기 게임 '동물의 숲'은 불매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고, 한국닌텐도는 지난해 매출 2000억원대를 회복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과 네티즌은 '본인 편의대로 불매를 하는 나라' '한국만의 독특한 편의주의'라며 비아냥댔다. 소니코리아의 지난해 매출도 전년보다 2336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ABC마트나 아식스코리아, 한국오츠카제약 등의 매출도 늘었다.

권련담배인 메비우스(옛세븐일레븐)·카멜을 파는 일본 담배회사 JTI 역시 불매운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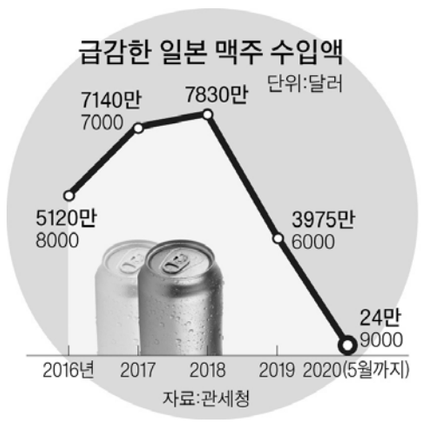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선택적 불매운동'이 진행된 셈인데, 이에 대해 유통 업계에선 "최근 20~30대의 소비 습관이 영향을 끼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사히 매출 반토막, 유니클로 철수
식음료·소비재 등 영업이익 급감

개성 중시 소비 습관 지닌 2030
대체재 없으면 사는 '선택적 불매'

마니아 있는 카메라·담배도 건재
렉서스 등 차는 할인 공세로 버텨



다.

이른바 '밀레니얼(MZ·1980~2000년대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2000년대 Z세대를 통칭)' 세대로 불리는 2030은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개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 이상, 기업 구성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박은아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의 불매운동이 애국이라는 하나의 신념에 기반 했다면, 최근의 불매운동은 한 가지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 같다"며 "2030이 불매 제품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대체재의 여부"라고 말했다.

실제로 불매운동 여파를 피해간 제품은 사실상 대체재가 없다.

닌텐도 스위치도 그렇고, 소니·캐논·니콘 등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카메라 시장도 그렇다. 시장 점유율이 미비하거나 소수의 마니아 중심의 제품도 불매운동을 비켜갔다.

국내 담배 업계의 한 관계자는 "JTI가 일본 불매운동 여파를 거의 받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JTI의 시장점유율은 국내 1~3위 업체와 차이가 많이 난다"며 "대신 일부 마니아층이 있기 때문으로 (불매운동의) 여파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JTI의 국내 담배 시장점유율은 한 자릿수로 업계 4위에 머물고 있다. 매출이 급락하면서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인, 매출 감소폭을 줄인 예도 있다.

자동차 시장이 대표적이다. 일본 완성차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0만원 이상을 할인을 시작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일본 완성차 5개 브랜드의 판매량이 3670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도요타·렉서스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올 6월 렉서스는 할인과 신차 효과로 불매운동 이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량 1000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도요타 역시 신차 효과 등으로 4월과 5월 각각 1128대, 1096대를 팔며 불매운동 이전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반달가슴곰 덕유산서 발견

141kg 건강한 수컷…5~6세 추정

덕유산에서 반달가슴곰〈사진〉한 마리가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31일 덕유산국립공원 신풍령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포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포획한 반달가슴곰은 몸무게 141kg 건강한 수컷으로 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으며, 연령은 5~6세로 추정된다.

목과 왼쪽 앞발에는 올무와 덫에 걸린 상처가 있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11월 덕유산국립공원 인근 삼봉산에서 무인센서카메라로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확인하고 지속해서 포획을 추진해왔다.

국립공원공단은 포획한 반달가슴곰에 발신기를 부착한 후 바로 재방사했으며 향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지리산 복원 개체와의 혈연관계나 개체이력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온라인 '맞춤형 환경인력양성교육'

전남대학교가 운영하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박정훈·전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황민진·전남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지역 환경관련학과 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환경인력(e-사람)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환경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환경특강과 취업특강 등의 취업전문교육, 청년취업고민 해소를 위한 '환경분야 직업설명회 및 선배멘토링·모의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ZOOM화상회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면접특강과 모의면접은 조별로 운영됐다. 또한 입사지원 실전준비와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면접 체험도 갖게 했다.

환경특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이해(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 센터장)' '환경산업 고용시장 현황 및 전망(㈜만도 박희근 부장)', '환경비전 및 미래 환경전망(한국환경공단 황승만 부장)', '유해화학물질관리 현황과 미래 대응(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권섭 부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XA AIG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RE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